



권영창 회장 뒤통수 다섯번째



제1회 지도의 날 행사 개최

제1회 지도의 날 행사가 2023.9.1.(금) 오후 2시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지도의날 제정추진위원회, 국립중앙도서관, 한국외교협회, 대한지리학회, 한국고지도연구학회, 한국문화역사지리학회, 한국지도학회 등의 공동 주최로 서해안 전 국립중앙도서관장의 사회로 개최되었다. 이날 행사에는 권영창 안동권씨 대총회 회장, 권영하 수석부회장, 권오돈 추밀공파회장 직무대리, 권경일 추밀공파 사무처장, 권오협 문충공종중 회장, 권동원 대전 참의공종중 이사장, 권준원, 권준달 대총회 종사편찬위원장, 권병돈 정간공종중 회장, 권병돈 창수공종중 회장, 권오상 대총회 사무총장, 권행안 편집국장, 권오달 편집위원, 권오섭 문충공종중 사무국장, 권혁중 국민외교문화관장과 부위원장 등이 참석하였다. 주요 인사로는 김일환 국립중앙도서관장 직무대리, 신봉길 한국외교협회장, 정성훈 대한지리학회 회장, 김원 건축환경연구소 광장 대표, 유홍준 한국학중앙연구원 이사장, 김인걸 국사편찬위원장, 이상태 한국영토학회 회장, 이강용 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 회장, 주성재 동해연구원장, 한병길 한·중남미 협회 회장, 고형일 전 한국교육개발원장, 김정화 전 서울공예박물관장, 선정규 전 고려대부총장, 김일기·허우공·이정복 전 대한지리학회 회장, 지리·지도 학회 관계자 및 지도 애호가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을 이루었다.

정성훈 지리학회 회장은 환영사에서 지리 망각한 민족은 설 땅이 없다고 말하며 지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지도의 날 제정으로 학생들의 지리·지도 공부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고 있으며, 강원대에서는 지리교육과 학생들이 자체적으로 '제1회 지도의 날 기념 행사'를 진행했다고 소개했다. 유홍준 한국학중앙연구원 이사장은 축사에서 세계 어린이 날이 없었는데 한국이 어린이 날을 만들자 세계 어린이 날이 제정되었다. 이와 같이 세계지도의 날이 아직 없다. 한국 지도의 날 제정을 계기로 세계 지도의 날을 제정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현명 공동대표는 국가지도자 머리 속에 세계지도가 없다. 개인과 국가경쟁력의 바탕이 되고, 글로벌 국가

경영과 세계 운영을 위해 하나씩 갖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보경 공동위원장은 강연에서 모든 국민들이 왼쪽에는 지도를 오른쪽에는 책을 놓고 (좌도우서左圖右書) 생활했으면 한다. 양촌 권근 선생의 발문이 없었다면 중요한 지도인지도 몰랐을 것이다.

양촌 권근 선생이 지도 밑에 쓴 훈일강리역대국도지도의 발문이다. "천하는 지극히 넓다. 안으로 중국부터 밖으로 사해까지 몇 천만 리나 되는지 알 수 없다. 이를 줄여서 폭 몇 자의 지도로 만들자면 상세하기 어렵다. 따라서 지도로 만들면 모두 소략해져 버린다. 다만 오문(吳門) 이택민의 <성교광피도(聖教廣被圖)>는 매우 상세하고 역대 제왕의 연혁은 천태승(天台僧) 정준(淸濬)의 <훈일강리도>에 잘 실려 있다. 건문(建文) 4년(1402) 여름에 좌정승 상락(上洛) 김공(金士衡)과 우정승 단양 이공(李茂)이 섭리(變理)의 여가에 이 지도를 참조하여 연구하고, 김상이(李善)에게 명하여 자세히 교정하도록 하여 합쳐서 하나로 만들게 하였다. 요수 동쪽과 본국의 강역은 이택민의 지도에도 많이 생각되어 있다. 지금 특별히 우리나라의 지도를 증광하고 일본을 첨부하여 새로운 지도를 만들었다. 정연하고 보기에도 좋아 집을 나가지 않아도 천하를 알 수 있다. 지조와 서적을 보고 지역의 멀고 가까움을 아는 것은 다스림에 보탬이 된다. 두 공(公)께서 이 지도에 몰두하였던 것을 통해 그분들의 도량이 넓음을 알 수 있다. 나는 재주 없는 몸으로 참찬을 맡아 두 분의 뒤를 따랐는데 이 지도의 완성을 기쁘게 바라보게 되니 몹시 다행스럽다. 내가 평소 애 방책을 강구하여 보고자 했던 뜻을 맛보게 되었고 또한 훗날 집에 거처하며 와유하게 된 뜻을 이루게 됨을 기뻐한다. 이에 이 지도의 밑에 기록한다. 시년(是年) 가을 8월에 양촌 권근이 씀"이다.

1402년 조선에서 제작된 훈일강리역대국도지도는 유라시아 대륙과 아프리카를 포괄하는 당대 가장 우수한 세계지도이며, 이 지도에 실려 있는 한반도 또한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한국 지도이다. 강리도

제작시기가 1402년 음력 8월 초인데 양력으로 환산하면 9월 초가 되며, 지난 2023년 6월 23일 강원대학교에서 개최된 대한지리학회 세미나 특별세션에서 지도의 날을 매년 9월 첫째 토요일로 제정한다고 선포하였다. 올해 제1회 지도의 날은 9월 2일이나 하루 앞당겨 9월 1일 행사를 개최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서 참석자들은 15세기 초 세계지도의 최고봉이며 최초의 한국전도를 보여주는 '훈일강리역대국도지도'(이하 '강리도'로 약칭)를 만든 우리나라가 지도강국을 통해 문화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하자는데 뜻을 모았다. 이와 관련, 이번 행사를 주도한 '지도의날제정추진위원회'(공동위원장 양보경, 김현명)는 이번에는 민간의 노력으로 행사를 개최하게 되었으나, 향후 국회입법화를 통해 지도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승격하여 국가 차원에서 기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또한, 참석자들은 미래를 짊어질 청소년들에게 우리 역사와 문화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세계지리와 지도의 중요성을 일깨우기 위해 노력한다는 데 뜻을 같이 하였다. 아울러 향후 사업으로 한국 최고의 문화재라 할 수 있는 '강리도'를 전 세계에 널리 알리기 위해 해외공관이나 문화원 및 세종학당 등에 상설 전시할 수 있도록 추진하기로 하였다. 또한, 이날 행사에서는 1980년대에 '바위섬'으로 대중에게 널리 알려진 가수 김원중이 세계가 찬탄하는 '강리도'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갖도록 하기 위해 직접 작사·작곡한 '강리도' 노래를 열창하여 감동을 안겼다. 지도전시에서는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대동여지도' 등 고지도 영인본, 총령공감방경기념사업회와 김영환 고문 제작 '강리도' 사본, <1402 강리도>저자 김선홍의 관련 국의 서적, 박하선 사진작가 제작 '강리도' 사본, 최숙의 화가의 '강리도' 모사본 등이 전시되었다. 특히 유네스코에서 발간한 불어본 <인류의 역사>(제4권 : 600-1492)는 책의 표지에 강리도를 실고 있는데, 이는 강리도의 세계사적 가치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알게 해주고, 국내의 인식이 아직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을 일깨워 주는 것이어서 눈길을 끌었다.

권행안 편집국장

<특별기고> 권인호(철학박사, 대전대 교수, 한국동양철학회 회장)

전통계승과 온고지신 및 민본적 정치철학의 실사구시적 실학정신 (39)



이때부터 무로마찌(室町) 막부(1336~1573)의 잘게 쪼개진 번(藩)들의 크고 작은 수많은 전쟁의 혼란기인 센고쿠(전국戰國)시대(1467~1615)를 거쳐, 경응(慶應)3년(1867년) 도쿠가와(德川) 막부(1603~1867)가 멸망하게 되었고 명치일왕(明治日王) 무츠히토(睦仁)가 즉위할 때(1868.9.8)였다. 그러나 명치 14년(1881년) 정변에서 민권운동가들은 왕실이 정상배들과 결탁한 '북해도 관유물 부정불하' 사건을 규탄 할 때, 강연회 등에서 이미 명치일왕을 "덴노헤이가(천황폐하天皇陛下)"라 부르지 않고 "무츠히토(睦仁)"라고 이름을 불렀다. 비록 세 막부가 교체되는 중간의 두 시기에 막부(기마쿠라:鎌倉-무로마찌:室町-도쿠가와德川)의 힘이 유명무실하거나 중단되었지만, 일본의 중세 봉건시대는 19세기 중반 이후까지 이어진 셈이다.

일본의 이른바 '메이지(明治) 유신(維新)'이란 명치일왕의 친정(親政)체제를 근대의 시작으로 보고, 이를 주도한 조오슈(長州)번과 사쓰마(薩摩) 번의 '도쿠가와 막부를 토벌하자'는 토막(討幕)사상의 성과를 살펴보자. 명치유신의 12년 전인 1856년(安政3년) 8월 진종(眞宗; 一向宗) 본원사(本願寺)에 승적(僧籍)을 가지고 있는 모쿠린(목린墨麟)이 그때 조오슈의 하카(萩) 야산 감옥에 투옥되어 있는 요시다 쇼인(吉田松陰, 1830~1859)을 재차 방문하려고 했으나 관(官)의 허락이 떨어지지 않았다. 모쿠린은 년 전에 요시다의 "수인록"을 읽을 기회가 있어 감명을 받고 서로의 의견을 빈번한(10회 이상) 서신으로 교환하였다.

이때까지 요시다(吉田)는 공무합체사상(公武合體思想; 국가사상; 천황과 그 조정공경公卿과 무가武家; 막부 무사와의 연합적 정치체제)으로 미도학(水戸學)의 동조와 결별, 경제적(經世)인 양학(洋學; 서양학), 반제국론에 머물러 있었다. 즉 막부 장군이 황실을 떠받들어서 국가를 다스리고 지킨다는 것이고, 제번(諸藩)의 영주는 각기 영지를 경영 통치하고 백성 모두를 하여금 그 삶을 편하게 누리도록 하며 외국의 침략을 격파하게 한다. 오늘날 영주의 명령을 성실히 따르고 막부의 법령을 지키는 것은 천조(天朝; 천황조정)를 받들고, 그리하여 천조를 섬기는 것이다. 미도학의 '존왕양이(尊王洋夷)란 막부번벌(幕府藩閥) 체제에 충성과 순종을 요구하고 있었다.

이러한 존왕사상의 원류는 아마자키 안사이(山崎闇齋, 1618~1682)인데, 그는 고대 "고사기古事記"와 "일본서기日本書記"등 일본 고유의 신도(神道; 신국神國)사상을 당시 덕천막부의 하야시 라잔(林羅山, 1583~1657) 등의 어용학문인 주자학에 합치시킨 것이었다. 그것은 바로 덕천막부의 관학이 주자학이었고 이것을 받아들이는 한, 비록 후기 양명학자

인 사쿠마 소오잔(佐久間象山, 1811~1864)도 요시다에게 와서 혁명적인 존왕양이 사상으로서의 전화(轉化)를 가져왔다. 그런데 진정한 존왕양이 사상으로 발전해 나가는 데에는, 약 100년의 야마가타 다이니(山縣大貳, 1725~1767)의 "류자신론(柳子新論)"(1764년: 明和 원년)에 윤 12월 막바지에 간토(關東; 에도江戶; 東京)의 북서부에 그렇게 일찍이 없었던 대규모의 이끼(일규一揆; 폭동)이 일어나기 5년 전인 1759년(寶曆 9년)에 야마가타(山縣)는 이 저술을 탈고하였다)에 영향을 받은 목립의 존왕양이사상에 의한 토막의 구체적인 사상적 세뇌설득이 주요하였다고 보고 있다. 야마가타는 여기에서 '막부체제를 근본적으로 뒤집어엎지(토막) 않는 한 서민(庶民)을 안정시킬 수 없다고 보았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토막할 수 있는가에 대해 야마가타가 고민하던 중, 그 보다 또 약 100년 전의 양명학자 구마자와 만산(熊澤蕃山, 1619~1691)의 문무균형론(文武均衡論)이나 농병론(農兵論)에 주목하였다.

그런데 앞서 말한 1764년 20만 이상의 농민이 봉기한 것이다. 구마자와(翁棗)와 산현의 농병론 내용은 다르지만, 덕천막부의 '주자학적 리(理)적 질서'에 의한 '정분론(定分論)'에서 무사와 농민의 신분적 계층차가 확고한 당시의 일인일기(一人一技)로 직업이전의 자유가 없었다. 여기에서 양명학적 사민(四民; 사농공상士農工商)의 평등주의에 의한 대동(大同; "예기禮記"예운禮運)적 일체사회 건설에 암시를 받은 것은 확실하다고 본다. 이러한 사상은 다시 산현의 생각은 후에 100년이 지나 조슈(長州) 번의 기병대가 명치유신의 실현에 커다란 공적을 세운 것이다.

일제 강점기 시대 도쿄(東京)제국대학 상과대 경제학 교수였던 후쿠다 도쿠조(福田德三, 1874~1930)는 독일 하이델베르크 대학에서 M. 베버(M. Weber, 1864~1920)에게서 배우고 돌아왔다. 후쿠다는 일본의 경제학자. 일본에서 경제학이 막 자립하기 시작한 명치유신(1867~1912) 말기에서 이른바 '다이쇼 데모크라시(大正民主화)' 시기(1912~1926)와 쇼와(昭和) 유신(維新) 시대(1930년대 군국주의 정치 혁명사상 용어) 초기에 걸쳐 경제학 연구·교육 분야에서 최대의 공헌을 한 사람이다. 그는 1896년 도쿄 고등상업학교(지금의 히토쓰바시대학一橋大學)를 졸업, 독일 유학 후 모교와 경응의숙(慶應義塾)에서 교편을 잡았다.

후쿠다는 1919년 동경제대 경제학 교수가 되어 죽을 때까지 경제원론·경제사·경제정책·사회정책 등을 강의했다. 마르크스주의의 소개자이자 날카로운 비판자이기도 한 그는 일본의 마르크스주의 경제학의 선구자인 가와카미 하지메(河上肇, 1879~1946) 교오토(京都)제국대학 교수와의 논쟁으로 유명하다. 후쿠다는 일본사회과학회(1896~1924)의 대표적 논객인 그는 1916년의 논문 '생존권의 사회정책生存權の社會政策'으로 유명하다.

다음호에 계속

지도의 날 제정과 양촌 권근 선생

지도의 날을 9월 첫째 토요일로 제정한 이유는 양촌 권근(1352-1409) 선생이 훈일강리역대국도지도의 발문에 지도 제작

일자를 1402년 8월로 기록했기 때문이다.

1402년 음력 8월 1일을 양력으로 변환하면 8월 29일이 된다. 그래서 지도의날제정 위원회에서는 강리도의 제작 시기와 가장 가까운 9월 첫째 토요일을 지도의 날로 제정하게 된 것이다. 권행안 편집국장

樞密公 派祖 歲享 및 定期總會 案内



晩秋之節에 우리 派親님들의 康寧과 家內均安을 기원합니다.
樞密公 派祖와 忠憲公의 癸卯年 秋享祭禮 奉行과 樞密公 定期總會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고자 하오니 追惟報本과 大宗會 發展을 지원하는 마음으로 많이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 일 시 : 2023년 10월 15일 일요일 10시 30분
- 장 소 : 경기도 파주시 진동면 하포리 산177번지 단소
- 집합출발 : 서울 지하철 5호선 광화문역 8번 출구. 관광버스 2대와 인솔자 대기
- 개별출발 : 자가용-네비-두포나루터-전진교검문소-출입승인절차-인솔자와 단소
- 진 행 : 1. 秋享祭禮 2. 定期總會 3. 食事
- 연 락 처 : 권경일 사무처장 010-3039-7282
- 찬조금, 회비 : 하나은행 231-910037-19104 안동권씨추밀공대총회
- 회관 헌성금 : 농협 317-0009-2118-41 안동권씨추밀공대총회

安東權氏樞密公派大宗會 會長 權五敦

檢校公派 派祖 秋享祭 奉行 및 定期總會 案内



謹啓 時下
중추지절에 파친님들의 평안을 앙축하옵니다.
검교공파 파종회에서 파조추향제를 아래와 같이 봉행하고자 하오니 바쁘신 일정을 뒤로 미루시고 많이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추향제 봉행 후 정기총회를 단전(壇前)에서 개최합니다.

안 건

- 1. 기타 현안문제 토의
- ♣ 일시 : 2023년 10월 26일(陰曆9월12日 中丁日) 木요일 오전 10시
- ♣ 장소 : 경북 상주시 공검면 울곡2리 파조단소
(주소 : 경북 상주시 공검면 울곡2길 114-14)
회장 권정택 010-9360-1077
총무부장 권영호 010-9355-2968

安東權氏 檢校公派宗會 會長 權正澤